

요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성교육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의 보건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홍보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를 게재해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건강한 성(性)의 이해

### -여성의 몸과 다이어트, 권력의 구조-

성 상담 전문위원  
심 창 교

#### <들어가면서>

최근 들어 신문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예인이 모양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의 몸의 주인은 여성 자신이 아님을 알게 하였다. 서글프게도 한 시대를 같이 살아 가는 다른 외국에서는 “내 몸은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외쳐대

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먼 곳의 일같이 느껴진다.

상업주의는 여성의 몸을 이용해 장사를 하고 미를 대량으로 퍼트리고 이미지에 예속돼가고 있는 여성의 몸은 대상화 해버렸다. 우리 사회는 유난히 성별을 쉽고 분명하게 구별짓기 위한 갖가지 사회적 기술과 도구들이 발달되어 있다. ‘여성답다, 남성답다’라는 말에는 서로 같은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며,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본다. 다이어트는 여성이 이상적 외모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다.

#### 1. 여성의 몸과 “미”의 권력화

한 사회의 지배집단이 다른 집단을 차별하고 낮은 사회적 지위에 묶어 놓기 위해서 가장 흔하고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 집단을 단 하나의 속성으로만 환원시키는 갖가지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개발함으로써 그 집단이 갖는 다양한 성격과 잠재력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한가지 속성의 문화적 가치를 폄하하려는 노골적인 또는 은밀하고 정교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집단은 사회 문화적 헤게모니를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흑인들은 흑인집단이 가진 다양성을 무시당한 채 피부가 검다는 육체적 속성만으로 환원되고 그것을 이유로 차별 당해

왔으며 검은 색은 추하고 더러우며, 열등한 속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다른 잠재적 가능성을 모두 거세당한 채 육체적 존재만으로 환원되어 정신과 이성의 가치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해 온 역사 속에서 정신, 이성의 담지자를 자처해 온 남성들에 의해 열등한 성으로 규정되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들은 아주 최근까지도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금지 당하는 한편 오로지 한 남자의 여자로서 아이를 낳는 육체적 기능과 이상적 기준에 맞게 꾸며진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가부장제 사회의 역사 속에서도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로부터 사회적 안정과 보상을 받음으로써 한층 안정된 정체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때때로 여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접근이 차단되었던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했다.

결국 몸 이외에는 어떠한 사회적 자원이든 가질 수 없었던 전통 사회의 여성들은 사회가 이상화하는 미모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몸매를 가꾸는데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없었다. 점차 육체를 가꾸기는 여성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자아실현의 영역이 되었으며, 사회적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여성의 모성을 상징하는 큰 가슴, 엉덩이와 함께 남성들의 한 팔에 안길 수 있는 정

도로 아주 가느다란 허리가 성적인 매력을 상징하는 아름다움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점차 타고난 외모에 만족하지 않고 압박, 장식, 은폐 기술을 발달시켜 갔다. 화장과 장신구, 의복들을 중심으로 한 미적 유행은 이러한 외모 관리 기술의 발달과 상호 작용하면서 점차 여성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 2. 소비자본주의의 등장과 다이어트의 보편화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는 다이어트로 연결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함께 일부 계층에게 허용된 풍요로움 속에서 진행되었다. 20세기 이래로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가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로 접어들고 대중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날씬함의 이상은 이제 전 사회계층으로 확산되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 여성의 몸의 이상형이 급속하게 가늘어지더니 1920년대에 들어 서구 사회가 소비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늘고 날씬한 몸을 가진 여성은 신식 여성상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이어트는 여성들의 외모관리 방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아무리 얼굴이 예쁜 여성일지라도 날씬하고 잘 빠진 몸매를 갖지 못하면 자타가 인정하는 미인이 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미지와 스타일이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

는 핵심적 기준이 됨에 따라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이상적 외모에 대한 욕망이 크게 확산되었고 유행 복식 즉 패션의 의미가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패션을 소화하기 위한 여성들의 날씬한 몸 만들기는 점차 하나의 사회적 붐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성에 대한 불평등한 성별체제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성들이 이러한 미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과정의 성격은 결코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은 어떠한 강압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경우 그러한 외모관리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쾌감을 안겨다 주는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라는 외모관리도 자기관리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능동적인 실천으로 여성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들은 환경과 사회 관계 속에서 외모관리의 필요성을 철저히 느끼고 그토록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므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위까지 획득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3. 여성의 외모 사랑, 성, 결혼의 의미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그토록 외모에 신경

을 쓰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쯤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상적인 외모를 갖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은 여성들에게 본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여자로서 정체감을 획득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처럼 뚜렷하게 성별화된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대비되는 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체성의 범위와 내용에 스스로 부합해야만 한다. 즉 여성답고 외모가 아름다운 것에 대한 평가는 여성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 외모의 기준이 최근에 점차 몸매의 날씬함으로 확대됨으로써 “여자=날씬함”이라는 공식이 사회적으로 크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아주 재빠르게 간파하고 수용하여 자신과 주변 여성들에게 적용시킨다.

또 한편, 여성들이 여자로 평가되는 가장 중요한 장 중의 하나가 바로 이성애(Heterosexuality) 관계이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감, 그리고 개



그림 1. 해방된 여성의 의상변화

인적 권력의 성취를 연애와 결혼 속에서만 추구할 수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게 선택받는 것을 매우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여성은 남성이 선호하는 이상적 여성상에 맞추어 자신들을 가꾸고 변화시켜 왔으며, 외모는 이러한 이상적 여성성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근대 이후 생겨난 “낭만적 연애”의 각본은 상대방 성별의 매력을 연애의 성립에 핵심적인 것으로 부각시켰으며, 여성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외모가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여성은 독자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지위와 권력에 이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방편으로 자신의 여자로서의 매력이 남성의 눈에 띄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한편, 남성은 시선과 관심의 차별적 분배를 통해 외모의 매력에 따라 여성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며, 때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이들을 배제시키기도 한다. 이로서 여성들은 외모를 중심으로 다른 여성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외모의 매력 포인트에서 점차 날씬한 몸매가 압도적인 의미를 차지함에 따라 여성들이 살을 빼서 그러한 몸매를 갖고자 하는 즉 다이어트의 현실적 필요와 그에 대한 욕망은 점점 더 강렬해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경직된 성의식처럼 여성의 몸뿐만 아니라 남성의 몸마저도 인위적인 매력

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개성과 남녀의 다양한 개성과 몸에 대한 가치관을 추구하지 못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거리를 활보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날씬하고 진한 화장과 같은 스타일의 머리와 옷을 입고 있음을 본다. 자본주의 속에서 마스크미 이러한 현상들을 유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영향과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선택이 성숙한 우리 사회를 만들고 외모로서의 여성과 남성이 아닌 인간 자체로서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여성의 날씬한 몸매는 낭만적 연애로 대표되는 성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여자로 정체화하고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은 날씬한 외모를 갖지 못한 여성들이 스스로를 성적인 존재(Sexual being)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도 뚱뚱한 여자는 성적 매력이 전혀 없고 따라서 남자와 연애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상식처럼 내면화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규정하는 섹슈얼리티는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와 그러한 의미를 내면화하는 여성의 욕망, 억압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문명**